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삶의 전환과 아쉬움



배규식_ 서울대 전기공학과 76학번 (추대교(당시 공문수학) 사원,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시지부 교선부장,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석사·박사 학위 취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현))

1994년 8월 26일 아침 일찍 나는 17시간의 비행 끝에 무거운 짐 보따리를 4개씩이나 가지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38살의 나이에 마누라와 일곱살박이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유학하러 영국에 온 것이었다. 아침 일찍 시외버스를 타고 히드로 공항에서 옥스퍼드로 가는 길은 눈이 시리도록 밝은 햇살 아래 늦여름답지 않게 파아란 하늘과 싱싱하게 펼쳐진 녹색의 잔디밭을 배경으로 유유히 풀을 뜯는 양떼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참으로 인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달력에서나 보았던 그림 같은 풍경이 버스의 창 옆으로 지나갔다.

한국에서 그동안 보낸 생활, 특히 학생운동과 뒤이어 노동조합운동에 몸담으며 쫓기듯 살아왔던 15년여의 생활이 한편으로는 회한과 같이 뿌연게 나타났다가 사라져 갔다. 노동조합에 깊숙하게 몰입하고 현실에 접근할수록 그 비전이 점차 왜소해짐을 느끼면서 노동조합을 떠나고자 했을 때 그동안 내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과 함께 남아서, 계속 활동하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교차하여 고민하고 방황을 하기도 했던 순간 순간이 가슴 아프게 떠오르기도 했다.

젊은 유학생 같았으면 새로운 유학생회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많은 새로운 꿈을 꾸었을 것이다. 만학도에 세상의 쓴 맛을 본 나는 마음의 결의를 단단히 하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웠다. 무엇보다도 남들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 잡고 증권간부로서 매우 활동적으로 일하거나 이미 유학이나 박사학위를 마쳤을 나이에, 그것도 당장 석사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석사 이전의 과정을 밟으려, 유학을 떠난 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따지자면, 유학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아니었다. 그동안 학생운동, 노동조합을 한다고 돈을 벌기는커녕 마누라의 신세를 지고 산 세월이 길었으니 말할 것도 없었다. 무작정 상경과 같은 무작정 유학이었다고나 할까. 계획한 2년 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한다는 계획이 확실히 선 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불안했다.

이후 영국에서 공부하던 내내 나이가 들어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학위나 마칠 수 있을지 혹은 학위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직장도 못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증도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특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해도 잘 들리지 않는 영어 강의, 영어 말하기의 어려움, 책 읽는 느린 속도 때문에 나는 때로는 좌절했고 무력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젊고 똑똑한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내가 보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후회가 되지는 않았으나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매우 늦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나의 경험에 비추어 많은 친구와 선후배들이 학생운동을 계기로 몸담아 왔던 운동을 떠나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따른 두려움, 적응의 어려움, 곤란 등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오랫동안 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일수록 그 전환에 따른 비용과 고통은 컸을 것이다. 계획했던 전환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도 있고 중간에 적지 않은 좌절을 맛본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대다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와 선후배들이 있는 것 같다. 운동을 하다가 건강을 해쳐서 돈벌이도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과거의 동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아직까지도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각 운동단체에서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 선후

배, 동료들을 보면 이념적 지향의 차이를 떠나 일단 그 끈질긴 열정과 억척스런 삶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다. 숭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는데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무엇을 하더라도 저렇게 즐기게 해야 어려움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거에 운동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소위 출세를 했으나 우리 대부분과는 관계가 없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과정이나 들어선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방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당선,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대해 누구보다도 다행으로 여겼고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물론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그다지 반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2002년에는 노사모 등에 참여하거나 혹은 오마이뉴스에 열심히 드나들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기도 했다.

그 뒤 정치사회적 민주화,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 통일정책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의 과거와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면서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헛헛한 것에 대해 무언가 말은 못하지만 서운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혹은 세상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꾸어 왔던 꿈을 펼쳐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어쩌면 놓쳐버린 기회, 펼쳐보지 못한 꿈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나온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갖게 되는 허전함은 더욱 크다.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그들의 자손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우리 일부의 생활로, 가슴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무엇을 기대하며 운동을 했었나. 우리는 그 당시에 변질하여 독재권력에 빌붙었던 많은 4.19세대, 6.3세대를 보고 코웃음을 치지 않았던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민주화와 개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는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하고 위로를 받고는 한다.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에서 아무런 결실을 눈앞에 보지 못하고 숨져간 많은 분들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본다.

나이가 비교적 성공적인 삶의 전환을 이루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급격히 보수화한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이 과거에 가졌던 민주화와 개혁의 이상을 가슴에 묻고 현실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혹은 책임 있는 중견일꾼으로서 과거 세대,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오늘도 삶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386세대가 새 정부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와 같은 1970년대 학번, 특히 긴급조치 세대들은 중간에 끼어 역할도 못해 보고 우리 사회의 무대에서 퇴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언론에 비친 386들의 눈부신 활약상에 비하면 그다지 눈에 띄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대 유신독재 말기 긴급조치 시대 때 모두가 숨죽여 말도 못하고 특히 기성세대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을 때 발언을 했고 행동을 했던 용감성을 갖고 있었다. 전두환 폭압정치 아래에서 학생운동은 대중적으로 저항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을 다닌 1970년대 말은 그에 비하여 매우 산발적이고 그래서 더욱 용기를 필요로 했던 때였다.

오십줄 이쪽저쪽에서 있는 우리 긴급조치 세대들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면 담담하게 해 나가면 된다. 요즘 퇴장하는 50대 후반 60대 이상의 장노년층들처럼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 나가는 것을 자연스런 세대교체인 줄 모르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좌파정부 탓으로 돌리는 짓을 보면 우습기 짝이 없다. 공부를 했다는 대학교수들도 이성을 갖고 사물을 바라보기는커녕 감정의 노예가 되어 노무현 정부에 상스런 비난을 퍼붓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며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다가 무섭게 표면하여 노무현 정부를 질타하는지 그 행태에 당황스럽고 인간의 간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이들 기득권층들처럼 퇴장해야 할 때 퇴장하지 않고 퇴장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노망든 모습으로 저항하며 욕해대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크게 기대하고 학생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어렵게 살거나 몸이 아픈 동료나 선후배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과 무언가 다른 세상을 꿈꾸어 온 사람들에게 걸맞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